



‘직지’ 지도층에 널리 알리자

정부종합청사서 특별전 개최



1 정부종합청사 특별전 개막식 테이프커팅모습
 2 직지홍보단 기념촬영 3 남동우 의장이 김명곤 장관(오른쪽)에게 직지영인본 전달모습
 4 이철희 고인쇄박물관 관장이 브리핑하는 모습
 5 홍우동회장이 조배숙위원장(상), 이수성 전국무총리(중), 이상훈 충북일보 회장(하)에게 전시장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6 시계방향으로 강혜숙의원, 조배숙위원장, 이수성 전국무총리, 남상우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현존세계 최고의 금속활자 인쇄본이며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 유산으로 등재된 직지심체요절을 널리 알리기 위한 '정부중앙청사 직지홍보 특별전시회'가 11월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정부종합청사 1층 로비에서 국회문화관광위원회 강혜숙의원과 청주시 공동주최, 세계직지문화협회 주관,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유네스코한국위원회 대한인쇄문화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 후원으로 개최됐다.

8일 오후 1시 열린 개막식에는 김명곤 문화관광부장관, 조배숙 국회문화관광위원장, 이수성 전국무총리(세계직지문화협회회장), 남상우 청주시장, 강혜숙의원, 이광철의원, 홍우동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남동우 청주시의회회장, 이상훈 충북일보 회장, 김종규 박물관협회장 등 내빈과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개막식은 강혜숙 의원의 개회사, 김명곤 장관의 축사, 남동우 의장의 직지영인본 증정, 남상우 청주시장과 이수성 회장의 환영사, 이광철 의원의 축사, 개막 테이프 컷팅, 전시장 관람, 리셉션 순으로 진행됐다.

강혜숙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직지는 우리민족의 우수성을 전세계에 알려주는 증거인데 독일은 구텐베르크를 온 국민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반면 우리 국민은 직지를 잘 모른다"며 "오늘 행사를 마련한 것은 직지를 지도층에 널리 알려야 하겠다는 생각에 작년 국회에 이어 다시 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곤 장관은 "직지는 문화적 자긍심을 높여주는 것이며 이러한 자긍심을 미래의 변화와 혁신으로 승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배숙 위원장은 "인류의 3대 발명품을 화약과 나침반, 금속활자로 꼽는데 우리의 선조들께서 이중 하나를 발명한 것은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라며 세계의 인쇄 역사를 바꾸는 일이야말로 우리들의 책무"라고 말했다. 남상우 시장은 "직지를 널리 알리고 문화민족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는 청주시민들의 힘만으로는 어려우며 중앙정부와 국회의 지원과 관심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수성 회장은 "직지는 우리민족의 기상을 높여주는 소중한 자산이기에 오늘 이 행사를 주관한 분들이야말로 애국자중 애국자"라고 말했다. 종합청사 1층 로비에 마련된 직지홍보 특별전시회는 금속활자 주조과정을 담은 디오라마와 직지문화상품, 다도, 직지 홍보 패널 등이 전시되고 직지 시연코너도 마련됐다. 

+ 김명곤장관 축사 전문



존경하는 내빈여러분, 이번 직지홍보특별전을 마련해 주신 세계직지문화협회 이수성 회장님, 강혜숙 국회의원님, 남상우 청주시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조배숙 국회문화관광위원장님, 이광철 국회의원님, 홍우동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정부종합청사에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존하는 세계최고의 금속활자본이며 유네스코 세계 기록문화유산인 직지를 기념하기 위한 특별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현재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로 인정받고 있는 '직지'는 우리 민족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소중한 우리의 유산입니다. 특히 지난 2001년에는 유네스코에서 지정하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우리 민족의 창조적인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좋은 기회를 맞기도 했습니다.

직지를 비롯한 우수한 문화유산은 우리의 문화적 자긍심을 크게 높여주고 있으며 한국의 창의적인 문화가 세계 인류문화 발달에 크게 공헌할 수 있음을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공무원은 물론, 모든 국민들이 이러한 자긍심을 미래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자신감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특히 문화관광부는 '직지세계화사업'을 통하여 한국 고인쇄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노력을 해오신 청주시와 동 사업관계자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성공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전시회를 통해 선조들이 물려주신 직지라는 훌륭한 문화역량을 적극 홍보하여 창조적인 문화발전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뜻깊은 정부종합청사 직지특별전시회를 개최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해오신 세계직지문화협회 이수성 회장님과 강혜숙 국회의원님을 비롯한 행사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높이 치하드리며 이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빈께도 감사를 드립니다.